

김호령, 끝내기승 시작점에서 부진 탈출을 외치다



김호령



KIA 수요일 한화전 3타석, 삼진→사구→도루 실패로 부진 9회초 선두 타자 출격해 안타치고 득점하며 역전승 발판 타격 부진 마음 고생...맷 감독 "선수에 믿음 보여주는 계약"

‘호령이 군단’의 시즌 첫 끝내기 승부에서 도화선이 됐던 김호령이 슬럼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KIA 타이거즈는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시즌 4차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뒀다. 3-3으로 맞선 9회말 2사 만루에서 나온 나지완의 안타로 만든 극적인 끝내기 승리. 7월 첫날의 승리는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KIA는 앞선 키움과의 주말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했다. 투수진이 두 경기를 3실점으로 막았지만, 20이닝 연속 무득점 속 연패가 기록됐다. 그만큼 1일 경기에 나서는 야수들의 부담이 컸다.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나지완도 경기가 끝난 뒤 “오늘 졌으면 오래갔을 것 같다. 분위기가 자제가 다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이 그렇게 느꼈고 표정 자체에서도 잘 안된다는 게 보였다”며 “최대한 승부에 집중함으로써 팀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승리의 의미를 말했다. 중요했던 승리, 그 시작점에 김호령이 있었다. 김호령은 앞선 세 타석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두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났고,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4회에는 도루 실패로 돌아섰다.

1-3으로 뒤진 상황에서 시작된 9회. 윌리엄스 감독은 그대로 김호령을 타석에 내보냈다. 선두타자로 나선 김호령은 우전안타로 출루하면서 공격의 불씨를 살렸다. 김호령에 이어 나주환의 연속 안타로 무사 1-3 루. 한승택의 자리에 들어선 대타 오선우도 안타를 만들면서 3루에 있던 김호령이 득점을 기록했다. 박찬호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선빈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3-3. 터커의 고의 사구 뒤 최형우의 헛스윙 삼진으로 2사 만루가 됐고, 나지완이 끝내기 안타를 터트렸다. 김호령의 안타로 시작된 극적인 승리, 김호령은 “앞 타석에서 감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 보다 짧게 맞히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책임감이 막중했던 타석이기도 했다. 김호령은 “어느 때 같으면 (대타로) 바뀌어야 하는데 타석에 들어갔다. 그 타석에 들어갈 때 더 책임감이 컸던 것 같다”며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했다”고 마지막 타석 상황을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앞서 김호령을 토타자로 내세우고 중책을 맡겼다. 최근 타격 부진이 계속되자 윌리

엄스 감독은 ‘선구안’을 언급하면서 1일에는 처음으로 6번에 김호령을 배치했다. 김호령은 “처음에는 1번이 부담이었는데 적응은 됐다. 최근에 갑자기 힘이 빠진 것 같고 타이밍도 잘 안 맞고 좋지 않다”며 “선구안이 좋았던 초반과 달리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갔다. 좋을 때는 볼 같은 게 다 눈에 보여서 손이 안 나간다. 타이밍이 안 좋다 보니까 나쁜 공에 나간다”고 언급했다. ‘타이밍’ 고민을 하는 김호령, 전역 후 복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체력’도 숙제다. 김호령은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면서 선구안에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시즌 초반에는 경기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아파다. 여기저기 아파다”고 웃었다. 타격 슬럼프에도 김호령의 수비에는 슬럼프가 없다. 빠른 판단과 강한 송구 등으로 ‘역시 김호령’이라는 감탄사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호령은 “수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쉬운 순간은 있었다. 지난 고척 경기에서 서경창의 타구를 잡지 못했던 게 생각난다”며 “타이밍에 신경 쓰면서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겠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호령과 마찬가지로) 선수 때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 타석에서 공이 잘 안 보이거나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었다”며 “대타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선수들에게 중요하고, 선수들도 이를 알아주면 좋겠다”고 ‘믿음’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덕아웃 T 특특 데뷔 첫 승 정해영 “승택이 형만 보고 던졌어요”

▲2루타 만들려고요 = 끝내기 안타를 치고 2루까지 내달렸던 나지완. KIA는 지난 1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끝내기 승리를 만들었다. 주인공은 3-3으로 맞선 2사 만루에서 좌익수 키 넘는 안타를 터트린 나지완이었다. 나지완은 안타를 친 뒤 2루까지 달려갔고, 2루에서 동료들의 끝내기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나지완은 “내 타석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 만루여서 상대 박상원 투수가 쉽게 변화구를 못 던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빠른 카운트에 해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루까지 간 상황에 대해서는 “2루타 하려고 했다”고 답을 했다. 만루 상황이라 2루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뒤늦게 파악한 나지완은 “2루타 안 되요? 아 만루구나”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승택이 형만 보고 던졌어요 = KIA ‘고졸 루키’ 정해영이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다. 정해영은 1일 한화전에서 1-3으로 뒤진 9회초 구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첫 타자 정은원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병살타로 투 아웃을 잡은 뒤 김태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9회말 KIA가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정해영의 승리가 기록됐다. 고졸 신인 선수가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적은 KBO리그 역사상 21번째, 구원승은 9번째다. 정해영은 “긴장 많이 했다. 긴장 풀려고 전력으로 던졌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다. 볼넷주고 코치님이 좀 빠르다고 하셔서 차분하게 했다”며 “(삼진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포수를 맡은) 승택이 형만 보고 전력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또 “생각하지도 못했다. 지난주에 왔는데 점수 차가 적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오늘도 나올 줄 몰랐는데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 윌리엄스 감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고졸 루키의 데뷔전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2일 정해영의 피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닝 정도 소화해줄 볼펜 투수가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 기용하려고 한다”며 “첫 등판, 데뷔전이었는데도 깔끔하게 이닝 막아줬다. 좋은 투구 내용이었던”고 평가했다. 이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한편 타이거즈 포수로 활약했던 정희열 전 수석코치의 차남이기도 한 정해영은 이날 경기를 통해 대를 이어 야구인으로 활약을 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최호성이 2일 경남 창원시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린 2020 KPGA 코리아 투어 첫날 경기에서 독특한 자세로 티샷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낙시꾼 스윙’ 최호성 첫 날 9언더 낚았다

KPGA 개막전 부산경남오픈 1라운드 선두...“목표는 우승”

‘낙시꾼 스윙’으로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최호성(47)이 7개월 만에 막을 올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에서 시원한 축포를 쏘아 올렸다. 최호성은 2일 경남 창원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파72)에서 열린 우승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 1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63타는 작년에 염은호(23)가 세운 코스 레코드와 타이 기록이다.

이 대회는 작년 시즌 최종전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263일 만에 열린 코리아투어 개막전이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주 무대인 최호성은 지난해 12월 일본 JT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 휴업 끝에 7개월 만에 대회에서 나섰다. 반면 남은 공백에도 최호성은 이글 1개와 버디 8개를 뽑아내는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다. 10번 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호성은 첫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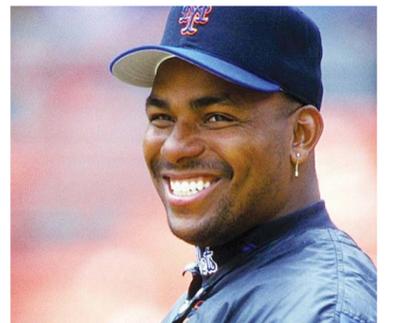
에서 50m 거리에서 60도 웨지로 친 두 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이글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11번홀(파4) 버디로 2홀 만에 3타를 줄인 최호성은 13번 홀(파5)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파5), 18번홀(파5) 징검다리 버디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5번홀 연속 버디에 이어 8번홀(파4)에서 8개째 버디를 잡아낸 최호성은 “첫 홀부터 행운의 이글이 나와 경기가 편하게 풀렸다”면서 “아내가 캐디를 맡았던 것도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 7개월 공백에 “실전 감각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털어놓은 최호성은 “생각 밖에 좋은 플레이가 나와서 기쁘다. 내일 경기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라는 최호성은 “선, 후배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훌륭해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은퇴 19년... 고액 연금 받으려면 보니아처럼

2000년 메츠와 연봉 25년 상환 계약...매년 14억 지급 15년 남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가 2일(한국 시간) 2001년 은퇴한 전직 야구 선수 보비아 보니아(57)에게 연봉 약 119만 달러(약 14억3200만원)를 지급했다. ESPN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메츠는 올해도 변함없이 보니아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며 “보니아 데이”를 맞아 각종 커뮤니티에선 관련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 콘텐츠 놀이)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츠가 보니아에게 매년 1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어처구니없이 맺은 계약서 한 장 때문이다. 1986년 사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데뷔했던 보니아는 1996년 플로리다 말린스(현 마이애미)와 4년간

2330만 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보니아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거쳐 1999년 메츠로 적을 옮겼고, 메츠는 이 계약을 승계했다. 메츠는 보니아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자 영입 1년 만에 그를 방출했다. 당시 보니아의 FA 계약은 1년이 남은 상태라 잔여 연봉 59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때 메츠는 10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으로 잔여 연봉을 지급하는 계약을 따로 맺었다. 문제는 메츠가 무려 연이율 8%로 계산해 계약을 맺었다는 것. 당시 메츠 구단은 보니아에게 줄 돈을 잠시 유보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고이율로 잔여 연봉을 주기로 했는데, 이 판단이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현역시절 보니아

보니아의 잔여 연봉은 무려 2975만 달러로 불어났고, 메츠는 이 돈을 201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7월 2일 약 119만 달러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보니아는 2001년 은퇴한 뒤 19년이 지난 지금도 메츠로부터 연봉을 받고 있다. 계약은 앞으로 15년이 더 남았다. /연합뉴스